

단색화, 해외를 누빌까?

작년부터 뜨거웠던 단색화의 열기가 여전하다.

아니, 이젠 해외에서도 본격적인 단색화 바람이 불 전망이다.

1970년대 태동한 단색화의 화려한 부활, 그리고 현재의 움직임.

에디터 정수진 사진 제공 국제갤러리

원래 시대마다 소위 '뜨는' 미술사조가 있게 마련이지만 태동한 지 40여 년이 지나 지금 국내 미술계에 일고 있는 단색화 열풍은 오묘하다. 1970년대 한국 화단에 선보이기 시작한 단색화는 그간 서구 미니멀리즘 또는 모노크롬의 아류로 여겨졌으나 현재 영어 표기로 'Dansaekhwa'라 쓰일 만큼 엄연히 독자적인 우리 미술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두 가지 무채색으로 이루어진 추상회화에 속하는 단색화는 미니멀리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선을 긋고, 한지를 겹쳐 요철을 만들거나, 고령토와 아크릴물감을 이용해 떼우고 메우기를 반복하는 등 재료의 물성이 두드러지고 정신의 합일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미니멀리즘이 다색주의에 반한 움직임이었다면 단색화는 무위자연에 가까운, 자연과 하나 되려는 무색의 몸부림이라는 게 단색화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설명. 여하튼 서구에서 미니멀리즘이나 모노크롬은 사라진 사조지만 단색화는 국내를 넘어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아트 바젤 홍콩에서 단색화 대표작가들의 작품이 뜨거운 조명을 받을 때부터 조짐은 보였다. 그러다 지난 5월 8일부터 시작한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병렬전시 <단색화>전이 팔라초 콘타리니-폴리냐에서 열리며 해외 무대에 본격적으로 단색화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국제갤러리와 벨기에 보고시안 재단이 개최한 이 전시에는 김환기, 권영우, 박서보, 이우환, 정상화, 정창섭, 하종현 등 단색화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 70여 점이 소개되었으며, 박서보, 하종현, 이우환 등이 이곳을 찾았다.

단색화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세계 미술계의 경향이 설치와 미디어 위주를 벗어나 추상회화, 특히 비서구 모더니즘 미술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2013년, 국제갤러리가 런던의 아트페어인 <프리즈 마스터스>에 'The Art of Dansaekhwa'란 주제로 단색화 20여 점을 출품하며 큰 호응을 얻은 이후 단색화는 최근 2년 사이 경매 거래가격 역시 5~10배는

뛰었다. 물론 예술 작품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 해외시장에서 예술 작품의 가격은 그 작가의 명성과 인지도를 가능하는 척도임은 분명하다. 실제로 지난 3월 K옥션의 홍콩 경매에서 김환기의 작품 <3-11-70 #143>이 8억8,330만 원에 팔리고, 9,000만 원으로 출발한 박서보의 <묘법 No.930612>가 3억4,115만 원에 낙찰된 일은 지금의 단색화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예다.

하지만 이러한 단색화 열풍이 북고 열풍에 의한 것이며 학술적으로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정창섭, 윤형근 등 작고한 작가들이 재조명되는 추세지만 미술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학술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것. 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 수행하듯 반복작업을 통해 인간 정신을 탐구하는 단색화의 동양적 특성이 서구에서 매료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색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반면 정작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범위는 아직 모호하다. '차이니스 아트 버블'로 불리며 세계 미술계에서 갑작스레 조명을 받다가 이젠 그 열기가 가라앉은 중국 현대미술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이런 분위기에 취해 있지만 말고 장기적인 연구 자세를 지니고 단색화를 접해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지금 국내에서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는 마크 로스코의 전시처럼 단색화 대표작가의 대규모 개인전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열리며 각광받을 때가 올지도 모른다.



(왼쪽부터) 하종현, 이우환, 박서보,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이용우 ©Keith Park

- 1 김환기(1913-1974) 17-IV 71-#201 Skyk, 1971. Oil on cotton. 254x202cm Courtesy of Whanki Museum ©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Photo Copyright © Ohyoul Kwon
- 2 박서보(1931-) Ecriture(描法) No.89-79-82-83, 1983. Pencil and oil on hemp cloth. 194.5x300cm Photography by Yun Sang-Jin.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3 이우환(1936-) Site-specific commissioned work, 2015. Installation View at Dansaekhwa, Venice, 2015. Photography by Fabrice Seixas.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 4 정상화(1932-) Untitled 75-8-15, 1975. Acrylic on canvas. 191.5x128.5cm Installation View at Dansaekhwa, Venice, 2015. Photography by Fabrice Seixas.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